

아시아 7개국 시멘트 시장 전망 (2002. 7. 15)

올해 아시아 7개 국가의 시멘트 생산이 2억 5천 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수와 수입등을 통해 2억 840만톤을 소비하며 지난해보다 소비량이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시장전망치는 최근 개최된 아시아권역 시멘트업체들의 협의체 ACPAC(Asian Cement Producers' Amity Club) 회의에서 제시됐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회복 및 수출증가 영향으로 올해 생산량은 크링카의 경우 전년 대비 3.3% 증가한 2억 3,09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시멘트는 지난해 2억 4,640만톤보다 1.5% 증가한 2억 5,000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분석됐다. 키른 가동률은 76.5%로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97년의 86.6%보다 10%포인트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신양회 성공적 구조조정 대표사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2002. 8. 2)

한국 외환위기로 인해 붕괴위기까지 맞았던 성신양회가 꾸준한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업계의 대표 강자로 떠올랐다고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EER)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FEER은 한국정부가 2년 전 52개 부실기업을 선정해 퇴출시켰을 때 성신양회도 퇴출 리스트에 포함될 것을 우려했으나 결국 업계에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구조조정 성공사례로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신양회는 지난해 214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도 23%나 증가해 업계 평균증가율인 13.7%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장점유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11.6%에서 오히려 더 올라 지난해 14.5%를 기록하며 국내업계에서 당당히 2위 업체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성신양회의 성공 비결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노동자와 경영진간의 이

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자구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이 라고 지적했다.

시멘트산업 지속가능 발전 지향 (2002. 8. 10)

라파즈(Lafarge)와 태평양시멘트 등 세계 10대 시멘트 메이커들은 오는 2007년까지 폐기물을 연·원료로 이용하고 배출물질을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세계 10대 시멘트 메이커들이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멘트산업 자주행동계획 발표를 통해 오는 2007년까지 기후변동방지를 비롯 △원료이용 △안전위생 △배출물질삭감 △지역사회영향 △경영프로세스 등 6개분야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들 10대 업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경제인 회의(WBCSD)의 시멘트산업부회 회원들로 프랑스 라파즈사와 일본 태평양시멘트사, 스위스 Holcim사, 멕시코 Cemix사, 독일 Heidelberger사, 이탈리아 Italcementi사, 포르투갈 Cimpor사 등이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北, 시멘트 증산 열기 (2002. 9. 16)

북한의 각 시멘트공장에서 생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6일 개성시 개풍군 '리현세멘트공장'과 평양시 '상원세멘트공장'에서 최근 “생산 설비마다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현세멘트공장'의 경우 각 공정마다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켜 증전에 비해 하루 1.5배 이상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고 중앙방송은 전했다. 최근들어 북한 매체가 '생산성 모범' 공장이라고 소개한 곳은 '세멘트연합회사' 산하 순천세멘트공장(연산 300만톤)과 상원세멘트공장(200만톤), 2.8세멘트공장을 비롯 천내리세멘트공장, 선봉세멘트공장, 해주세

멘트공장, 8월2일세멘트공장, 고무산세멘트공장 등이다. 이들 공장은 당국의 정책적 지원으로 컴퓨터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시멘트 공장들이 풀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내부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은 현재 중소형 발전소와 대규모 주택, 농·목장, 양어장, 닭공장 건설 공사 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함경남도 흥남시와 자강도 초산군 등에 대규모 주택 건설을 비롯 함경남도에만 290여개의 중소형발전소가 완공됐고 80여개 발전소가 건설중이다. 이와 함께 석탄과 시멘트 등을 건설 현장에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시멘트 생산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석회석 매장량이 1천억톤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지난 '99년 410만톤, 2000년 46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했다.

특수시멘트시장 밝다 (2002. 11. 6)

시멘트 업체들은 새로운 건설기술과 공법에 맞는 콘크리트의 성능을 내기 위해 구조물별로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특수시멘트를 개발,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보통시멘트로 널리 인식되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특수시멘트 분야의 성장세도 만만치않은 추세다. 현재 전체 시멘트시장에서 특수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이라는게 업계의 평가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10%대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국내에서도 적용이 늘어나며 특수시멘트로 건설되는 아파트와 빌딩, 주요 토목구조물을 자주 접하게 될 전망이다. 특수시멘트의 구분은 공식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업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와 남부권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슬래그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제품을 특수시멘트의 범주에 포함하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제품군으

로는 크게 시멘트계 제품과 몰탈계 제품 및 연관제품으로 구분된다. 선진국의 경우 특수시멘트가 이미 보편화돼 종류만도 수백가지에 이르며 수요 또한 상당량에 달하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국내의 경우 아직 도입기에 머물고 있지만 구조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추세에 따라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수요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특수시멘트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시멘트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내년 건자재 수요 소폭증가, 건설연 전망(2002. 11. 17)

16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3년도 건자재 수요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6%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허가면적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로 판단할 때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건축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 동향을 살펴보면 올 3~6월에는 1,300만㎡를 넘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7월이후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1,000만㎡이하로 축소됐다. 그러나 총량으로는 올 1~8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전년 대비 55.5%가 증가했는데 이는 IMF이전인 '97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이며 따라서 민간건축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내년 건자재 수요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주택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수요증가율이 둔화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주요 기초건자재 수요증가율은 레미콘 4.3%, 시멘트 3.5%, 철근 1.8%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레미콘은 1억 3,444만㎡가 출하돼 '97년의 1억 3,014만 5,000㎡를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시멘트는 5,652만 2,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